"골프연습장 주민피해 왜 외면하나"

광산구, 수완동 호남 최대 규모 준공 승인

인근 아파트 "소음·조망권 등 침해" 반발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들어선 호남최대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광산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승인, 골프연습장이 오픈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H레포츠(주)사가 광산구 수완동 136-6번지 일대 2만2천420㎡ 부지에 연면적 2만2천655㎡, 호남최대 규모인 135타석의 골프연습장 (3층 건물)을 신축, 지난해 말 준공검사를 받아 지난 14일 오픈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골프연습장의 경우 공사착공 시점부터 인근 H아파트 972세대 주민들이 소음공해를 비롯해 야간 조명피해 및 조망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광산구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해당 주민들은 "타석이 3층으로 조성돼 전체 135석이나 되며 그물망의 최고 높이가 66.5m로 아파트 24층 높이에 해당되는 초대형 골프연습장이 아파트와 불과 1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산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최근 준공검사를 승인, 골프연습장이 오픈하게 되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 K모(48·광산구 신창동)씨는 "인·허가 과정에 사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구청이 업체편에 서서 준공을 승인했다" 며 "피해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골프연습장의 경우 사전 환경성영향평가에서 소음진동규칙법의 생활소음규제 기준의 45db을 0.9.db 초과한 상태인데도 구청이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 허가해 주민의 편의보다 업자의 입장을 반영한 행정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대책위 나몽주 회장은 "구청측이 소음을 방지하는 등의 차폐시설을 보완하는 등 업체측이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준공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지난해 말 준공을 승인했다" 며 광산구청의 행정 행위에 불만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 지난 16일 주민대표와 업체측이 만나서 완만히 합의가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업체측에서 배상액으로 7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최승렬기자 wtkee@

장성 거리엔 4계절 내내 꽃내음 솔솔~

郡, 꽃묘 75만본 심기로

장성군이 계절별 꽃묘 식재로 사계절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꽃양귀비, 메리골드, 국화 등 계절별로 꽃묘 74만8천본을 생산해 시가지와 관광지 주변에 식재할 계획이다.

봄에는 꽃양귀비, 메리골드, 금계국, 페추니아 등 총 28만본을 생산해 공급하고, 여름에는 메리골드 46만6천본을 공급한다. 또한 가을에는 국화 1천본, 겨울에는 꽃양배추 1천본을 각각 공급한다.

꽃묘는 농가에 위탁해 생산·식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된 봄꽃묘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공급해 시가지 및 도심 소공원, 백양사, 홍길동 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식재된다. 군은 앞으로 다양한 화종들을 생산·식재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강진에 조경수 연구단지

'郡-수프로' 업무 협약

강진에 후박·가시·녹나무 등 난대 조경수 양묘장 및 품종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 정약용실에서 조경수 전문 생산업체인'수프로'와 업무협약을 맺고 강진군 신전면 용화리 일원에 부지 19만9천㎡를 확보,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자해 난대 조경수 생산을 위한 양묘장과 조경수 품종 및 자재개발 연구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기업 유치를 통해 계약재배 방식으로 연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신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난대 조경수 양묘장을 활용한 조경·임학 관련 학생들의 실습을 겸한 교육장 활용과 강진만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난대수종은 연평균기온 14℃이상, 1월 평균기온 0℃이상, 강수량은 1천300~1천500㎜로 일교차가 적고 비가 많이 내리는 제주도가 주 생산단지이나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남부 내륙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체계적인 생산유통 등 기반 구축으로 난대 조경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

영양만점 겨울 무화과 출하

최근 영암군 삼호면 시설하우스에서 무화과 수확이 한창이다. 무화과는 본래 여름·가을철에 주로 출시되지만 보온덮개와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겨울철에도 출하가 가능해졌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화순 '노인 복지센터' 이달말 완공

7천㎡ 규모…진료실·찜질방 등 갖춰

화순군 노인복지센터가 이달말 완공 된다.

화순군은 "화순읍 강정리 화순천변 인근에 신축중인 군 노인복지센터 '나드리관'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고 18일 밝혔다.

'나드리관'은 부지 6천912㎡, 건축면적 2천788㎡ 규모로 호랑나비가 날아가는 모형의 유선형 2층 건물로 디자인됐다.

건물 전체가 유선형으로 설계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뤄진데다 사방에 창문이 달려 하루 종일 햇볕이 들게 고려했다.

특히 장애노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해 1·2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휠체어를 탄 채 건물 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장애인 전용통로가 마련됐다.

1층에는 남녀 찜질방과 샤워실, 각종 물리치료기구가 비치된 건강 증진실, 진료실, 2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2층 어울림터(대강당)에서는 영화감상을 비롯해 우리춤, 차밍댄스, 실버댄스, 진도북춤, 웃음체조, 노래교실, 스포츠 라틴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완준 군수는 "개미산 만세루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쾌적화·생태화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전남도민체전 D-100'

화순군 추진위 발대식

화순군이 오는 4월 27일 개막하는 제 49회 전남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를 '문화체전'으로 치른다.

화순군은 도민체전 D-100일을 맞아 지난 17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 적벽실에서 각계인사와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화순에서 처음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통해 생물의약산업의 메카 '테라피 화순'의 진면목을 대내외에 널리 과시하는 다짐의 한마당이었다.

군은 대회기간 중 시·군 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연, 예향 화순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완준 군수는 "앞으로는 문화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도민체전을 성대한 '문화체전'으로 승화시켜 화순이 지향하는 '테라피 화순'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光州報 전남중부취재본부
광산 강진 나주 담양 영암 장성 장흥 화순
본 부 장 김용기
기원태 국장
최승렬 부장
이상휴 차장
정칠현 기자
남철희 기자
정운수 기자
김용호 기자
노정훈 기자

記者 노트

자질과 덕목 갖춘 의원 필요하다

정칠현 〈중부취재본부 기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시정을 책임질 시장은 물론이고 시의원들의 선택이 향후 4년은 물론 나주시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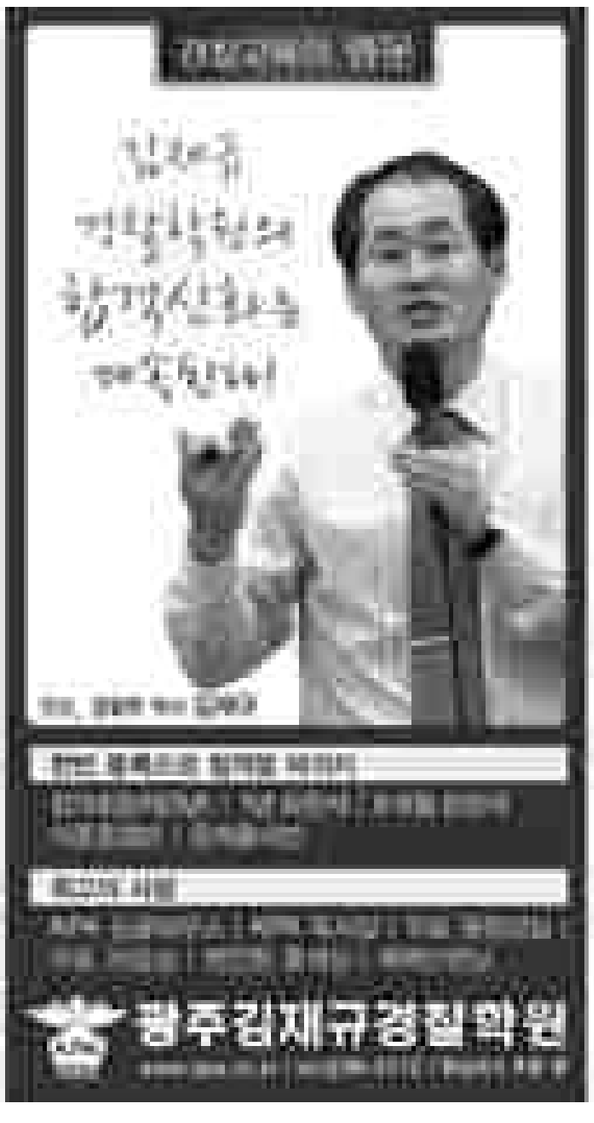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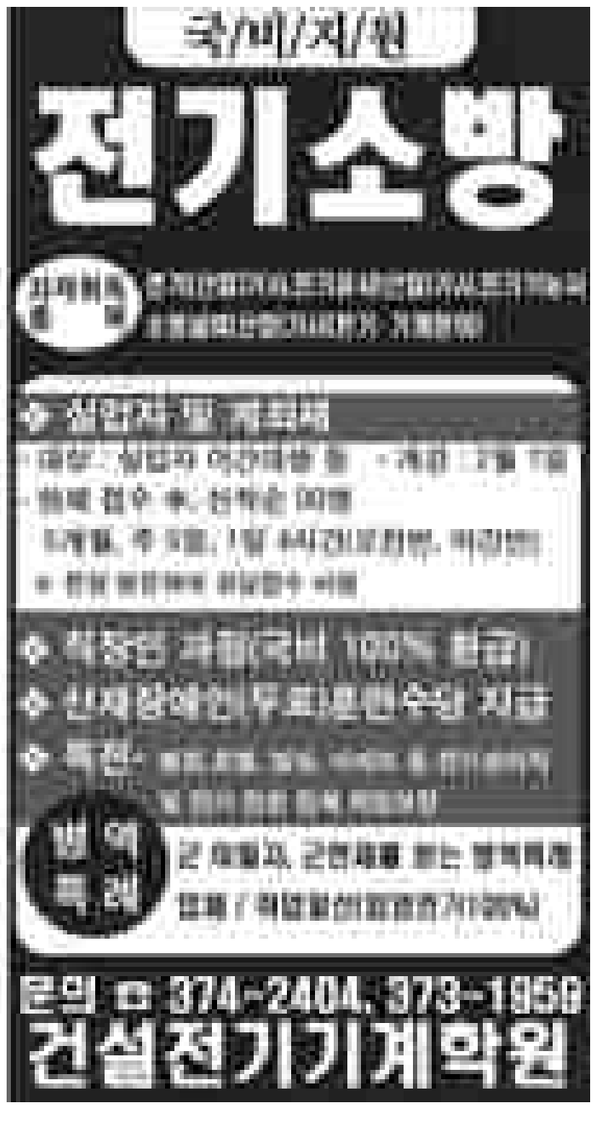
하지만 나주시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 보여 온 행태를 보면 고개부터 돌리게 된다. 나주시의회는 그동안 두 패로 나뉘어 무조건 집행부의 방패가 되려는 쪽과 사안에 상관없이 반대만을 내세우는 쪽이 맞서 온 의정활동으로 점철돼 왔다. 의원마다 그러한 행동이 마치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보스(?)에게 잘 보이고자 눈치만 봐왔다.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도 의원 간담회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행태. 이를 놓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위원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통 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예산삭감. 14명의 의원 중에서 지난 4년 동안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그러고도 다시 뽑아 달라고 사정하며 표를 구걸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의원들은 자신들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지금 나주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호기를 맞고 있다. 시민들은 한창 건설 중인 혁신도시와 영산강개발이 완료되면 나주가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것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의원들간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인해 타지역에 부정적으로 인식된 나주의 이미지 개선도 결국 시민의 손에 달렸다.

나주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들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회의 주인은 시민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특정인에 기생하며 행세하려는 인사는 배제돼야한다.

시민들이 냉철함을 잃지 말고 '덕목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만이 나주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chjung@